“이웃·나라 위해 목숨 바친 의인들 극락왕생을…”

생명나눔실천본부 ·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 희망선물’

⑤ 생명나눔운동본부 천도재 현장

남양주 불암사=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나눔실천본부는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남양주 불암사에서 6 · 25한국전쟁 때 전사한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원을 비롯해 코로나19 희생자, 장기기증자 등 나라와 사회를 위해 목숨 바친 의인 영가 축원 천도재를 봉행했다.

생명나눔, 6월6일 남양주 불암사
호국영령 · 의인 영가 365위 봉안
코로나19 희생자 위한 위패 눈길

1995년 시작…올해 28회째 이어
참석자들 “자비 나눔에 큰 감동”
현장서 희망등록 동참 잇따르기도

“사회와 타인을 위해 목숨 바친 모든 분이 호국영령입니다. 부디 극락왕생하시길 간절히 발원합니다.”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고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한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남양주 불암사 극락전에서 국가와 민족, 사회를 위해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과 의인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제28회 생명나눔 천도재’를 봉행했다.

불교를 대표하는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995년부터 해마다 9월 9일 중양절에 사후 시신, 뇌사시 장기기증으로 생명나눔을 실천한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천도재를 실시해왔다. 2018년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공무 희생자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천도재 날짜도 현충일로 바꿨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희생자를 기리는 위패도 함께 모시고 있다.

장기 기증자 유가족을 비롯해 생명나눔실천본부 회원, 불암사 신도 등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된 올해 천도재에서는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군과 경찰 등 호국영령과 장기를 기증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 장기기증자,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돕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의인(義人) 등 모두 365명의 영가를 모셨다.

천도재에서는 특히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원 영가 위패 13기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불암산 유격대원은 1950년 6 · 25한국전쟁 발발 초기 불암산을 근거지로 삼아 북한군에 맞서 게릴라식 전투를 벌여 혁혁한 공을 세우고 전원 전사한 육군사관학교 1~2기 생도 13명과 기간병 20여 명들이다. 당시 불암사는 유격대원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며 게릴라전을 지원했고 마을 주민 100여 명의 목숨을 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기억을 살려 생명나눔은 2017년부터 이들의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다. 불암사도 2020년 현충일을 맞아 사찰 앞에 위령탑을 건립, 호랑이 유격대원들의 애국 충정을 기리고 있다.

이날 천도재는 시련과 대령, 법문, 영가천도 의식 등으로 3시간가량 진행됐다. 동참자들이 제단 앞에 나아가 헌화 · 헌다를 하는 동안,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마음들이 독경소리를 타고 불암사 경내를 장엄했다. 불교전통의식과 함께 나비춤과 바라춤이 이어졌다. 이후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의 진흥무가 이어지면서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안거 집중수행에 들어간 일면 스님을 대신해 법석에 오른 태안 보타락가사 회주 법진 스님은 법어에서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 활약상과 함께 이들을 추모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스님은 “오늘은 국가와 민족, 국민들을 위해 자신의 한 몸을 기꺼이 받친 의인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이라며 “나라를 지키고, 국민 안전을 수호하다 목숨을 잃은 이들의 헌신 덕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음을 알고, 인연이 있든 없든, 민족으로 위해 목숨을 내놓은 수많은 영가를 천도하고 그분들의 고귀한 삶을 기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명나눔에 대한 의미도 나눴다. 법진 스님은 “장기기증은 자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숭고한 일”이라면서 “세상의 배려와 도움으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보시를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새벽부터 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연으로 천도재를 올린 100여 명의 불자들로 설법전은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박태후 불자는 “생명나눔실천본부를 10년 넘게 후원해 온 인연으로 수년 전부터 천도재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불암사에서 영가들을 잊지 않고 축원하는 모습을 보면 생명나눔실천본부 활동에도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아이와 함께 천도재에 동참한 김미나 불자는 “매해 천도재에 동참하는 어머니를 따라 지난해부터 함께하고 있다”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소중한 생명을 나누고 떠난 이름 모를 영가들의 자비나눔에 크게 감동해 인연은 없지만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불암사 경내에서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동참이 잇따라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천도재 참가자 외에도 불암산에 방문한 등산객들도 장기기증 희망서약에 동참하면서 마음을 나눴다.


천도재에는 기증자 유가족을 비롯해 생명나눔실천본부 회원, 불암사 신도 등이 동참, 영가에 헌화 · 헌다했다.


동참자들은 천도재 동참을 통해 진정한 나눔을 실천한 영가들에 대한 기억을 되새겼다.


법사로 나선 법진 스님은 법문에서 의인들을 추모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통한 보시행도 당부했다.


불교전통의식인 바라춤에 이어진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의 진흥무는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날 불암사 경내에서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동참이 이어져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장기 · 조직기증으로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해주세요
02 · 734 · 8050



한사람의 장기기증이 9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사람의 인체조직기증이 100명의 사람들에게 새 삶을 선물합니다.
장기 · 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으로 아름다운 나눔에 동참해 주세요.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증 희망등록 전문 홍보교육 기관으로, 뇌사 시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후 안구 · 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 국내 · 외 지원사업, 자살예방교육 등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장기 · 조직기증 희망등록 사업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희망등록을 통해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사업
백혈병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피를 생성하는 세포)를 기증할 수 있도록 희망등록 사업 진행

환자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환자 치료비 지원 및 해외 의료구호 활동

자살예방교육사업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확산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희망의씨앗